

농식품 수출 판로, 온라인으로 개척

전북도-바이오진흥원, 오늘 신남방·중화권 시장 진출 B2B 화상 수출상담회 중국·싱가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유력 바이어 직접 발굴·매칭 방식 진행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수출 판로를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개척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개최하는 '신남방 및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북 B2B 화상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이 막힌 어려운 전북 식품기업들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유력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여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는 제품 샘플을 사전에 바이어에게 발송해 바이어가 상담기

업의 샘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바이어와 식품기업 간에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 마련된 온라인 수출 상담회장에서 지역 내 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33개 업체들과 아시아 10개국 13개사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회 참가하는 바이어는 국가별로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총 10개국이며 한국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말레이시아 KMT그룹, 싱가포르 고려무역 등이 바이어로 참가한다.

최근 전세계 K-POP 열풍으로 인한 K-FOOD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세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담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북

기업 N사는 "위드코로나 시대 해외 각국에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좋은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전북 식품기업이 언택트 수출 역량을 기르고 막힌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중소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언택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며, 현재 제19회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시 상담회도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전북도와 함께 김장철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 농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김장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장철 전북농산물 판매 확대

전북농협, 30일까지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김장철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 농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김장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식탁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판매되는 상품은 배추, 절임배추, 무, 대파, 생강, 고춧가루 등 김장채소들로 전량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기술 창출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여 공로 인정

카이테크, 중기 융합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전북도 중기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재성'과

전북도의 탄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

도는 도내 도약기업인 (주)카이테크가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중소기업 융합 대전에서 (주)카이테크가 창조적 기술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전북도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주)카이테크(전주 대표이사 김학모)는 자동차용 모터제어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간 자동차 전장품 모듈 관련 제품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 핵심부품 관련된 독자



김학모 대표이사

기술을 인정받아 국내 현대·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크라이슬러, 일본의 혼다 등에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또한,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하고 있는 도시 진주' 상생협약 참여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의 고용인정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주)카이테크 김학모 대표이사는 "전북도 도약기업 지원프로그램인

협업으로 기술 해결지원사업을 통해 공정을 개선해 제품의 내구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으로 작업자의 능률을 향상하고, 고객의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신규 아티클 수주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가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육성체계가 전북의 산업구조를 혁신적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육성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융합촉진 유공 포상'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확산' 등 3가지 분야의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기부 장관 표창 등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개발공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상황으로, 전북개발공사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공사는 안전관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맞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안전의 시작일 뿐이다"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과 고객 및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공사가 안전관리의 지역사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미 수출 유망품목 발굴,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 강화"

aT 김춘진 사장, 미국 개척 K-FOOD 판촉 행사 현장 찾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K-FOOD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H-MART(대표 권인연)의 본사와 판촉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는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의 70여개 매장을 활용하여 미국 서부와 동부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K-FOOD 판촉을 중남부까지 확대하여 미국 내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H-MART 주요 매장에는 K-food 홍보관이 설치되어 한국 농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한국산 신산배를 비롯 김치, 인삼, 장류 등 130여개 품목에 대한 집중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13억 66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0.9% 증가했으며, 김치, 인삼 등 건강식 품목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K-FOOD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H-MART의 본사와 판촉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25% 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 사장은 "대미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H-MART와 같은 현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와 H-MART는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인이 실천하는 저탄소 생활문화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등 ESG경영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청, 첨단소재 전문 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에 참가해 새만금 투자유치에 나섰다.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은 국내 유일의 첨단소재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8개국 130개사가 참가해 복합재 등 총 3,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전시회를 찾은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새만금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와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등의 추진현황과 투자환경을 소개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인 전북지역의 자동차 생태계를 연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과 이를 지원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글로벌 기업인 도레이와 솔베이를 비롯해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해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 강소기업들이 입주했으며, 연관 기업들의 투자 문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2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1년도 제8회 우수조달물품심사에서 도내 업체 (주)금강시트 등 2개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37개사(50개 제품)이다. 이번 지정된 군산 소재 (주)금강

피씨(대표 서상준)의 밀체형 앵커가 매설된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앵커는 PC앵커의 접합면에 일체형 앵커를 매설하고, 접합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등으로 수밀성 향상 및 열악한 지반환경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다.

익산 소재 (유)홍석(대표 송진호)의 '스마트 크로핑(Cropping) 기술을 이

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은 UHD(4K) CCTV를 적용함으로써 고화질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용량 영상데이터로 인하여 과도하게 증가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절감시키는 '스마트 크로핑' 기술을 적용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0년 연간 구매액은 약 335,000억 원이다. /김윤상 기자

올 겨울, '우리 포인세티아'로

우수 국산 품종 40여종 개발... 시장점유율 향상 보탬 기대 농진청 "착한 소비 될 것" ... 오늘부터 이틀간 신제품 선보

크리스마스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빨간 꽃 '포인세티아'는 멕시코가 원산지지만, 우수한 국산 품종도 40여 종이 개발돼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개발한 포인세티아 품종을 소개하며, 우리 품종 구매는 농가와 영세 육묘체를 돕는 착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외국 포인세티아 품종은 화분 1개당 70~110원의 사용료(모벌터)를 해외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포인세티아 꺾꽂이로 가격의 10~15%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육묘업체와 화훼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포인세티아를 소비자가 찾게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사용료가 줄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훼산업과 육묘 업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40.8%를 차지하는 우리 품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포인세티아는 색과 모양, 생육 면에서 외국 품종에 뒤지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8~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평가회를 열고 새로 육성한 10개 품종과 품종을 선보인다. /김윤상 기자



새로 나온 '원교6-136', '원교6-137', '원교6-138' 계통은 국내 소비자가 좋아하는 붉은색에 잎이 길게 팬 형태(열린잎 깊음)를 띤다. 특히, 원교6-136과 '원교6-138' 계통은 색이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7주와 6.5주로 짧아 조기 출하로 재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원교6-135'와 '원교6-139' 계통은 복숭아색 잎(포엽)을 지닌다. '원교6-135'는 가지 치는 성질이 좋아 중수형 화분용으로, '원교6-139'는 생육이 좋아 대형 화분용으로 알맞다. 평가회에서는 새 계통 외에도 '플레임', '레드링', '레드볼', '슈가볼', '헬로우링' 등 기존에 개발한 가지각색의 품종을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전북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데이' 개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법석, 이하 센터)에서는 지난 18일 '제2차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데이'를 진행했다.

'소셜벤처는 전북'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8개 기업이 참가해 2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프로보노와 기업 간 1대 1 상담으로 진행된 행사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금융 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보노 역시 소상공인진흥공단, 파타마협 등 사회적경제 금융 전문가를 초청했다.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김윤상 기자

센터는 지난 6월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회적경제 금융 전문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프로보노데이의 콘텐츠를 '자금'과 '금융'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현용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프로보노데이를 통해 금융 전문가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 기업 운영 승부를 트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제1차 프로보노데이에 이은 경진원과 센터의 두 번째 공동 사업으로, 양 기관은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성공 모델 개발을 위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